

작가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얘기한다.

삶을 통해 삶의 터전에 관해 말하고, 고루한 것을

통해 윤기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작은 담론과 거대

담론을 통해 바람직한 삶과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소설이 이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욕망의 파이와 살바싸움,

아마도 세상은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그리고 소설의 태반,

발효된 시점보다 훨씬 불안정한 터전에서 숨을

교토의정서 이면에 도사린

쉬고 있을 것이다.

‘동물성 욕망’의 축

이쯤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축으로 한

글 | 임동헌

교토의정서와 소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작가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얘기한다. 삶을 통해 삶의 터전에 관해 말하고, 고루한 것을 통해 윤기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작은 담론과 거대 담론을 통해 바람직한 삶과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다. 소설이 이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세상은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시점보다 훨씬 불안정한 터전에서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축으로 한 교토의정서와 소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최근 1,2년 사이 소설가들의 눈은, 기댈 곳 없는 패잔병 처지가 된 가장들의 삶을 정치하게 들여다보는 데 많이 바쳐지고 있다. 갓 데뷔한 작가에서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눈이 발견한 가장들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한심한 꼬락서니다. 허혜란은 <독>(동아일보 신춘문예 2004년 당선작)에서 집과 살림살이를 경매당한 후 ‘나’는 전단지 돌리는 부업을 하고, 남편은 발기불능자가 되어 택시기사를 하는 일가족의 삶을 들이민다. ‘나’의 희망은 아귀의 독을 제거한 후 매콤하고 쫄깃하게 아귀찜을 만드는 것으로 전략했다.

최계옥의 <은벚나무>(강원일보 신춘문예 2005년 당선작)에도 처량맞은 가장이 등장한다. ‘나’의 남편은 택시기사였으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운전을 못하고 있고, 빚보증을 잘못 서서 남의 돈까지 물어줘야 할 한심한 처지다. 발기불능을 넘어 재기불능이다. ‘나’는 노래방 도우미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남자 품에 안겨 블루스를 추고, 남편은 복권을 긁는 일에 매달린다. 극극극, 남편은 죽어라고 복권을 긁지만 복권은 긁는 그만큼 돈을 잃게 되는 마약일 뿐이다. 그런 처지에 ‘나’는 이른 아침에 부는 바람결에 은벚나무 꽃잎이 날아갈까봐 조바심이 일어 은벚나무를 향해 뛰어간다. 아귀찜 만들 희망을 갖는 것, 은벚나무를 향해 뛰는 것, 밑바닥 인생이 된 가장들 아내들의 희망이란 이렇게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 글을 쓴 임동현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작가들은 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욕망의 피해자가 됐을 때 견뎌야 할 가족 공동체의 고통이 작가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견뎌도 회복되지 않는, 발기불능이거나 재기불능인 상태로 살아야 하는 고통의 크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우현의 〈덧〉(한국일보 신춘문예 2004년 당선작)과 송옥영의 〈피〉(한국일보 신춘문예 2005년 당선작), 장은진의 〈키친 실험실〉(중앙일보 신인문학상 2004년 당선작)과 이상금의 〈개구리 요리를 하는 시간〉(무등일보 신춘문예 2005년 당선작)에는 주요 모티프로 동물이 등장한다. 〈덧〉은 야생 고양이를 포획해 구청에 넘겨 밥벌이를 해나가지만 결국 아내가 숨겨 있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가장을 그리고 있고, 〈피〉는 닭의 목을 끊어내 냉동차에 실어 보내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자와 병든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신불수가 된 남자는 부침개조차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처량맞은 신세이고, 결국 죽는다. 〈키친 실험실〉의 사내는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처지다. 아내는 밖으로만 맴돌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람까지 피우고 있는 처지지만 휠체어에 앉아 아내의 알리바이를 깰 수는 없다. 사내는 동네 꼬마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개구리를 잡아오게 하고, 비둘기를 잡아오게 하고, 그것들을 요리한다. 〈개구리 요리를 하는 시간〉의 주인공은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쿽서비스로 배달받은 개구리를 병실에서 요리하는 한편 그 와중에 불륜까지 감행하는 주부다. 그러나 그는 병실 근처의 사슴 농장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

동물이 주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는 이들 소설은 때로 엽기로, 때로 최루로, 때로 비루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들 소설 모두가 절묘하다. 세상이 엽기와 최루와 비루함을 낳았으므로 소설가들이 그 내용물들을 소설이란 그릇에 담는 것이다. 소설은 세상이 낳는 것이지 상상력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소설의 태반胎盤이다.

여기에 교토의정서 얘기를 덧붙이자면 식물들을 모티프로 삼은 소설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잘 어울릴 것이다. 가령,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 이윤기의 〈나무가 기도하는 집〉, 오수연의 〈부역〉, 한강의 〈몽고반점〉이라든지 하는 작품들 말이다. 그러나 얘기의 축은 조금 다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직접적인 원인은 온실가스의 끝 모를 증가에 있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원인, 즉 동물성으로 표방되는 욕망의 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를 오는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보다 5.2퍼센트를 줄이고 그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1990년 기준 60퍼센트 수준까지 회복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토의정서 협약에서 미국이 2001년에 탈퇴했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 조항이 너

무 미미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속셈은 교토의정서대로 하기에는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이 대목이 압권이다.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6퍼센트를 쏟아내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격이다. 이 점을 놓고 보면 야릇해진다. 배출량이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줄이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인데 엉뚱한 염살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욕망이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17.4퍼센트를 배출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것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업살은 '세계의 민주화'를 외치며 여러 나라에 폭정 종식을 외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를 방치하면서 여전히 미국식 자본주의, 게다가 요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며 네오콘을 외치는 것과는 배치된다.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 온실 가스 폭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급기야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최근 '미국을 설득하겠다' 고까지 나선 것을 보면 세계적인 환경 코미디가 등장한 느낌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세계 정책에 영국이 반기를 들 때면 으레 들고 나오던 '동반자' 구호를 이제는 영국이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들여다보자. 우리는 결국 욕망의 파이를 키우면서 욕망은 실현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만 잔뜩 부풀린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세상에는 욕망의 전위에 섰던 가장들의 파편화된 삶이 질펀하게 널려 있고, 그 현상이 요즘 작가들의 소설로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의 처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아직도 욕망의 파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지 못하겠다고 떠름한 표정을 짓는 상대와 살바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한양**